

사업위험에 대한 인지가 창업의욕 및 사업유지의욕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Recognition on Business Risk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하규수(Kyu Soo Ha)*, 서상혁(Sang Hyuk Seo)**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잠재창업자인 20세 이상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가 여러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태도·행동 모델과 소비자의사결정 모델을 응용하여 사업태도와 위험인지 변수가 창업 및 사업유지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비전문직 종사자, 부모가 창업경험을 가진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남성,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실현의 창업동기를 갖는 경우 창업의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업실패경험이 없는 경우, 101억부터 1천억 사이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사업체 운영자, 긍정적인 사업태도를 가진 경우 사업유지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사업위험,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창업의욕, 사업유지의욕

※ 논문접수일: 2011.11.10, 1차수정일: 2011.12.15, 게재확정일: 2011.12.20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부교수, ksh@hoseo.edu, 02-523-3015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suh8777@hoseo.edu, 02-2055-2926, 교신저자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both present and potential entrepreneurs who are over 20 years old. The theme was that how businessmen's manners toward business and danger-perception have difference and are affect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Besides, we also worked on the influence of manners toward enterprise and risk-perception variable on intention of starting and maintaining a business by using a decision-making model of consumers.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attitude toward enterprise was positive when the entrepreneur is man or unprofessional. This phenomenon was also observed if his or her parents had business foundation experience or he or she has self-realization motive rather than economical. Meanwhile, danger-recognition was high when the entrepreneur has no job, is more than 40 years old, has business background, or has affirmative enterprise attitude.

Second, people who are man, have parents with business background or have self-realization motive on business foundation were more willing to start a business. Meanwhile, people who have affirmative enterprise manners, company with sales from 11 billion to 100 billion won or no business failure experience had high intention to maintain a business.

Third, businessmen who are men, work in unprofessional job or have business experience had more strong desire to establish enterprise. Meantime, people who are old, have no jobs or have enterprise experience showed high danger-recognition level.

At last, people who are men or jobless had strong will to start a business. So did the people wh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business or have parents who have business experience. Meantime, people with affirmative business manners or no experience of enterprise failure had strong intention to keep business.

Key Words : business risk, attitude on business, risk on busines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ntion for business

I. 서 론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청년실업증가, 고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계속되면서 창업은 직업창출과 동시에 실업자의 잠재된 자원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고, 산업의 혁신과 다양성을 이루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창업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미래지향적 재편을 선도하고 산업의 경쟁성확보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관에서는 자금지원, 신용보증, 기술개발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조세지원, 입지지원, 경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잠재적 창업가들인 기업의 근로자나 학생들이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때,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의지가 있어야 한다. 창업의지는 창업과정, 창업행동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Krueger, 1993).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행동의 첫 단계이다. 한편, 사업의욕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무언가를 형성하기 위한 의지 또는 흔히 폐업할 의사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의지나 사업의지를 설명함에 있어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모델(예: Fishbein, Ajzen, 1975)이나 결과를 창업 및 사업의욕이나 사업유지의사에 응용할 수 있다(Krueger & Carsrud, 1993). 일반적으로 개인의 창업의사결정이나 사업의욕에는 사업 및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창업의지 및 사업유지의사에 사업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창업 및 사업의지에 대한 연구들은 경영학 기업영역에 초점을 둔 연구,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연구,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가족기업창업에 대한 통일된 접근방법이나 개념적 모델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사업가의 사업유지의사, 사업의욕, 또는 사업성취욕 등도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이면서 동시에 창업자 또는 사업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다. 사업유지의사나 사업의욕은 사업성과, 폐업 또 다른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중요한 연구주제 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의 Fishbein, Ajzen 모델과 위험인지 개념을 중요시 하는 소비자의사결정접근법을 응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창업과 사업유지의 선택을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파악하여 태도와 행동모델, 위험인지 소비자의사결정 접근을 도입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과 사업유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창업 및 사업유지 의사결정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창업과 사업유지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과 사업유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가 창업의지 및 사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창업과 사업유지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창업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업 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둘째,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사업에 대한 태도와 위험인지가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때, 이 두 변수 이외에 창업의사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창업 및 사업유지 의사결정에서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치가 변수의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및 사업유지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사업태도 및 위험인치의 중요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 관련 교육 및 각종 지원,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성공적 운영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창업자 및 사업자의 특성이 창업 및 사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지, 또한 어떤 특성을 가진 사업가가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및 관련 자료가 축적된다면 창업 및 사업유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창업의사를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및 정책, 그리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사업의욕을 높이는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의지의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

Dollinger(2002)는 창업을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 아래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유와 경영 분리가 대세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창업이란 가족창업, 소규모 창업의 의미가 강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의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s)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다.

창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창업의지 관련 연구(박시사, 강성일, 2007; 이지우, 2000; 윤방섭, 2004; 하규수, 박배진, 여정은, 2009), 창업자의 특성(예: 교육, 가족배경, 경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외 소재 등 심리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¹⁾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대섭, 신충섭, 2006; Smith & Miner 1983; Begley & Boyd 1987).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 특히,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예: Krueger & Brazeal, 1994; Katz & Gartner, 1998; Krueger, 1993). 주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부모의 사업경력 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창업의지에 영향요인 중 가장 많이 그 효과가 검증된 것은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질(trait)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주로 위험선호성향, 통제외 소재, 성취욕구(Brockhaus, Horwitz, 1986; 이지우, 2000), 자율욕구(Sexton, Bowman, 1986), 개인적 통제욕구(Greenberger, Sexton, 1988) 등이 대표적이다. Reynolds(1992)는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환경 특징, 개인의 삶이나 경력 환경의 특징, 개인의 성향을 제시하였다.

Naffziger, Hornsby, Kuratko(1994)은 창업과정을 살펴보면 창업시작 단계의 의사결정 뿐만이 아니라, 창업 후 그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전체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창업자 개인의 특징, 가족관계와 성별과 같은 창업자의 개인적 환경,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금획득의 용이성과 같은 사업적 환경, 구체적 사업 아이디어, 창업행동이 이익과 매출, 시장점유율기대 등의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윤방섭(2004)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경력지향성(career orientation), 창업에 대한 자기유능성, 개인적 환경요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역할, 그리고 사회적 환경요인(예: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지향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안정지향성은 한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자율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자기유능성은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개인적 환경요인인 사회적 지원과 성공적 역할모델은 응답자들로부터 구분된 변수로 인식되지 못하여,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1) 본 연구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하나 창업과 기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Sexton & Bowman(1986), Begley & Boyd(1987)는 창업자의 성취 욕구, 자율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독립성 등이 기업성과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ofer & Sandberg(1987)는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관련 산업의 경영경험이 성공적인 창업자의 중요한 특성이며, 창업자의 관련 산업의 경험은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통합하여 분석하였는데, 네트워크 환경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윤방섭(2004)의 연구는 창업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의지의 영향 요인으로서 경력지향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미래 창업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과정과 기업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자신의 재능과 가치, 욕구를 발견하게 하고, 시뮬레이션이나 행동 모델링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훈련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기유능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한 창업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자의 역할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시사, 강성일(2007)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으로 창업자의 인적자본(예: 교육, 창업전통, 근무경험)과 심리적 요인(예: 성취욕구, 내적 통제소재, 자기효능감)으로 구별한 후 이들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내적 통제소재와 자기효능감 변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규수, 박배진, 여경은(2009)은 잠재적 창업가의 사업실패부담감과 환경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창업의욕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창업경험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창업동기유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김현철, 홍경완(2008)은 외식창업의 동기척도를 개발한 결과 긍정적 동기는 성취욕, 미래안정성, 좋은 상권, 지식 활용, 진취적 활동이며 부정적 동기로는 생계형과 퇴직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신모(2005)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인턴십 등을 통해 창업과정과 기업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의 재능과 가치, 욕구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에 대한 자기유능성을 형성시키려면, 창업과정과 기업경영에 대한 풍부한 학습과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배종태, 2009). 이주현(2008)은 창업동기와 창업의사결정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Daniel Kahneman의 예상이론을 적용한 결과 개인이 창업할 확률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임금 수준에 반비례하며 또한 실질임금수준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태도 및 인식 변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창업위험인지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진, 엄태성, 변광인(2009)은 잠재창업자의 직업성격유형을 6가지로 분류한 후 창업의지를 조사한 결과 설득적 유형, 현실적 유형, 사회적 유형, 예술적 유형, 탐구적 유형, 관습적

유형 순서로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창업교육, 창업 성공 결정요인 등에서 직업의 성격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창업을 연구함에 있어 위험 요인을 고려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nsity)은 위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편안히 받아들이며, 오히려 흥미 있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시장 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위험 감수를 전제로 한 경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감수성향은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ovin & Slevin, 1989). 대체로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에 대한 연구결과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지닌 기업가가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 Miner, 1983). Lee & Peterson(2000)은 창업가는 조직의 직무회피와 반대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공적인 기업가는 위험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성공적인 창업가는 불확실한 환경이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 준다.

2. 사업유지의사 및 관련 선행연구

사업유지의사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파산이나 사업을 처분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업유지의사는 현재 사업중인 기업가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토대를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구이다(Schein, 1978). Shapero(1992)는 사업유지의사에 대해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자기쇄신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업유지의사는 사업중단의 개념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데, Ulmer & Nielsen(1947)은 사업중단의 33%는 자금손실 때문, 30% 정도는 퇴직, 질병 등으로, 20% 정도는 다른 사업기회를 위해서 나머지는 사업장 계약 만료 등 여러 이유로 사업계속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Smallbone(1990)의 연구결과는 사업 시작 후 2.5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비율이 42%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실패를 적용할 경우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08)에 따르면 해마다 사업을 폐업하는 비율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숫자의 80%를 넘나들고 있어 폐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실패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기업의 27.6%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3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53.6%가 도산하는 것으로 나타나(하규수, 2009), 창업연구에서도 사업의욕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중단의 요인을 창업가 특성 등 기업가 측면, 기업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기업의 역량 측면, 기업의 전략적 측면과 산업환경 측면 등 주로 외적 요인에서 원인

을 찾고 있고, 기업가 및 잠재 기업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아 오지 않은 편이다(하규수, 2009).

사업가의 사업의욕이나 사업유지의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을 이미 수행중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유지의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사업유지와 유사한 연구로서 사업성이나 사업성공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사업성공에 관한 연구들은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Sandberg, 1986; Covin & Slevin, 1990)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성공의 요인으로 기업가의 마인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예: 성취지향성, 성취욕구), 시장환경, 자원, 조직 등이다(Sexton & Bowman, 1983, 1990; Begley & Boyd, 1987). Mazzarol & Thiery(1999)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위험감수의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자기관리에 대한 요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위기, 즉 사업중단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나 사업의 스트레스,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업실패후 처리에 대한 인지 등의 요인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실패후 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인지는 사업실패 후 다가올 가족 관련 손실, 사회적 손실, 경력 손실, 명예 및 자존감 상실 등의 우려감을 의미한다.

한정화(2008)는 창업과정에서 기업가가 경험하는 위험으로 가족과 사회적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사업가들은 만약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실패를 한다면 그가 이룬 사회적 위신이나 명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erglas, 1997). 한편,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중요함을 밝힌 연구가 있었는데, Boyd & Gompert(1983)는 450개의 조사대상 중소기업체 사장 중에서 약 55-65%의 기업가들이 심각한 허리문지,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화(2008)는 기업인 인식하는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치면 신체적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측면으로서 첫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둘째, 이에 대처하는 메카니즘을 개발하고, 셋째,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개인적 욕구의 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창업 및 사업유지의사 관련 이론적 접근

창업의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의도적 행동모델에 틀을 두고 있

다. 이 모델의 핵심은 의도 또는 태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Fishbein & Aizen(1975)의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 또는 흔히 태도·행동모델이 대표적이다. 태도·행동모델에 따르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 본다. 창업은 계획된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전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과 관련한 연구에서 의지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창업 관련 태도와 창업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Fishbein & Ajzen(1975)의 일반적인 논리를 창업에 적용할 수 있다(Krueger & Carsrud, 1993). 창업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창업행동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Krueger, 1993).

한편, 기업활동의 복잡성과 다양성, 불확실성 아래에서 사업자의 사업유지의사에 대한 이론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사업실패한 기업의 사후연구는 회계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 사업유지의사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한 태도·행동 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응용할 수 있다. 태도·행동모델에 따르면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태도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태도는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사업유지의사결정에도 응용할 수 있다(Ajzen, 1982; Ajzen & Fishbein, 1980; Krueger, Reilly & Carsrud, 2000).

또 다른 이론적 접근으로 사업유지의사는 위험인지 개념을 중요시 하는 소비자의사결정 접근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때 그 행동의 수행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하여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때, Fishbein의 태도·행동 이론을 사업유지 의사결정에 적용한다면 사업의 계속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또는 사업실패에 대한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인지의 개념은 소비자의사결정에서 많이 활용해 온 개념으로 주식투자나 위험자산관리에서는 재무위험인지로, 공무원의 골프채 구입에서는 사회적 위험인지, 의료제품이나 병원선택에서는 신체적 위험인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욕구나 사업유지의사에 사업자의 위험과 관련된 행동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위험인지, 손실부담감,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태도 등의 변수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사업은 상당한 비용손실과 위험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비용손실과 위험부담은 사업 부담감과 실패 스트레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업의욕이나 사업유지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유지의사를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으로서 Ajzen & Fishbein(1980)의 태도·행동 접근, 위험인지의 개념을 반영하는 소비자의사결정이론을 도입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사업 중인 기업가와 사업을 하지 않는 잠재적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질문이나 표현 등을 수정·보완한 후 2009년 9월, 1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주로 기업 업무 담당자를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모집단의 특성 등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다. 본 설문지는 680부가 회수되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잠재창업자 405명, 현재 사업운영자 217명이 최종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사용되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창업의사 및 사업유지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업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둘째,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다. 셋째, 사업에 대한 태도와 위험인지가 창업의사와 사업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한다. 이때, 이 두 변수 이외에 창업의사와 사업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3. 측정방법

조사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태도를 2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계수인 Cronbach 알파 값은 .69로 나타났다.

〈표 1〉 창업 및 사업 관련 변수 측정문항 및 내적 일치도

구분	문 항 내 용	평균	신뢰계수
사업 태도	· 사업실패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매력적이다.	3.36	.69
	·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2.73	
위험 인지	· 사업실패시 기업가는 사업(주자)자금을 잃을 것이다.	3.88	.75
	· 사업실패시 기업가의 손실은 자신의 투자자금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3.88	
	· 사업실패시 기업가가 잃는 금전손실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3.46	
	· 사업실패시 기업가의 가족들도 금전손실을 볼 것이다.	3.68	
	· 사업실패시 기업가의 손실은 재물손실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3.94	
창업 의지	· 나는 소규모 가족창업을 하고 싶다.	3.36	.87
	· 나는 향후 5년 이내에 창업하겠다.	2.79	
	· 사업이 많은 위협이 있다해도 나는 소규모로 가족창업하고 싶다.	3.01	
사업 유지	· 큰 손실만 없다면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	3.53	.79
	· 사업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3.89	
	· 사업을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이 자주 있다.	3.08	

참고: 사업유지의사는 역코딩함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수준은 5개 질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5로 밝혀졌다. 창업의사와 사업유지의사는 각각 3개 문항, 5점 척도로 조사한 바, 3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7과 .7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1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였다.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 창업의사 및 사업유지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업 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분류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방법 중 하나인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창업의사와 사업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조사당시 사업을 하지 않는 잠재창업자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구분하여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을 하지않는 잠재창업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창업자의 73%는 남성이었고, 27%는 여성이었다. 잠재창업자의 평균연령은 34세로 나타났고, 30세미만이 전체 잠재창업자의 45%, 30세에서 39세까지가 23%, 40세 이상 49세까지 22%, 50세 이상의 경우 11%로 드러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6%를 제외한 대부분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20%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잠재창업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당시 사업을 하지 않는 잠재창업자의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잠재창업자중 취업한 상태인 경우는 56%, 비취업자인 경우는 44%로 나타났다. 취업자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절반인 50%로 나타났다. 사업을 하지 않는 잠재창업자의 과거 사업경험을 조사한 결과 8%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업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창업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66%인 252명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창업경험은 없으나 기업의 임원을 지낸 경우는 51명(13%), 창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21%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대략 절반 정도는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약 23%는 부정적이었고, 나머지 20%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만약 창업을 할 경우 창업의 동기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성공을 위해 창업하겠다는 경우가 대략 절반정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35%인 125명이 자아실현이라고 답하였다. 대안이 없어서나 생존을 위해 창업하겠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남영호(2002)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데, 남영호(2002)의 조사에 의하면 창업의 목적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발휘라고 응답한 경우가 40.4%,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어서가 22.0%,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가 18%,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18%로 나타났다. 본 연구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창업의 동기가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남영호(2002)의 연구결과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의 동기는 아직 생계형이나 경제적 이유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를 5개 문항, 최대 25점으로 조사한 결과 잠재창업자의 위험인지수준은 평균 18.8로 중간 값인 15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의 약 61%가 매우 위

〈표 2〉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잠재창업자의 일반적 특성(N=405)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94	73.0
	여성	109	27.0
연령 (M=34.2 S.D.=11.3)	18-29세	179	44.5
	30-39세	92	22.9
	40-49세	88	21.9
	50세 이상	43	10.7
교육수준	고졸 이하	22	5.5
	대졸	297	74.6
	대학원 이상	79	19.9
취업여부	취업	222	56.3
	비취업	172	43.7
직업유형	비전문직	196	49.7
	전문직	198	50.3
사업경험	없음	371	91.6
	있음	34	8.4
부모 창업경험	창업경험 없음	80	20.9
	임원(비창업주)	51	13.3
	창업경험 있음	252	65.8
사업에 대한 태도(M=6.0 S.D.=1.8)	부정적(1~4)	91	22.7
	중립(5~7)	228	56.9
	긍정적(8~10)	82	20.4
창업 목표	경제적 성공	176	48.6
	자아실현	125	34.5
	대안이 없어서	17	4.7
	생존을 위해	44	12.2
사업위험인지 (M=18.8 S.D.=3.3)	조금위험(1~13)	25	6.2
	위험(14~18)	132	32.8
	매우위험(19~25)	245	61.0
창업의사 (M=9.1 S.D.=3.1)	소극비창업(1~7)	122	30.3
	창업(8~10)	134	33.3
	적극창업(11~15)	146	36.3

참고: 결측치로 인해 표본수 합에 차이가 있으며 반올림으로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33%인 132명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잠재창업자들의 창업의사에 대해 3개 문항, 최대 15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9.17로 중간 값인 9점정도로 창업의지는 보통수준, 중간정도임을 알 수 있다. 비율의 경우도 약 1/3정도는 적극 창업하겠다는, 1/3 정도는 창업, 나머지 1/3은 창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업 관련 특성

〈표 3〉 사업운영자의 일반적 특성(N=217)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78	83.2
	여성	36	16.8
연령 (M=45.57 S.D.=8.38)	18-29세	10	4.7
	30-39세	41	19.1
	40-49세	93	43.5
	50세 이상	70	32.7
교육	고졸 이하	22	10.3
	대졸	119	55.6
	대학원 이상	73	34.1
과거 사업실패경험	없음	139	64.1
	있음	78	35.9
부모 창업경험	창업경험 없음	40	19.8
	임원(비창업주)	10	5.0
	창업경험 있음	152	75.2
사업년수 (M=8.99 S.D.=7.14)	1~9년	113	58.9
	10~20년	58	30.2
	21~30년	17	8.9
	31년 이상	4	2.0
사업직종 유형	제조업	57	32.2
	건설업	15	8.5
	유통업	29	16.4
	서비스업	76	42.9
년간 매출액 (M=49.3 S.D.=115.5)	100억 이하	132	81.0
	101-1000억	13	8.0
	1000억 이상	18	11.0
사업에 대한 태도(M=6.9 S.D.=1.8)	부정적(1~4)	19	10.2
	중립(5~7)	88	47.6
	긍정적(8~10)	78	42.2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M=12.1 S.D.=2.1)	조금위험(1~13)	148	70.5
	위험(14~18)	62	29.5
	매우위험(19~25)		
사업유지의사 (M=10.5 S.D.=2.9)	소극유지/중단(1~8)	16	26.0
	유지(9~11)	59	30.1
	적극유지(12~15)	121	43.9

참고: 결측치로 인해 표본수 합에 차이가 있으며 반올림으로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을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83%는 남성, 여성은 약 17%로 나타났다. 사업운영자의 평균 연령은 약 46세였으며, 30세미만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5%(10명), 30대가 19%, 40대가 44%, 50세 이상이 3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34%로 사업운영자의 경우 앞서의 비사업자에 비해 매우 교육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6%가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창업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모가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40명으로 20%,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2명, 약 75%로 나타났다.

사업운영 중인 사업체의 운영년수는 평균 9년으로 나타났고, 9년이하가 약 59%로 나타났으며, 20년이 넘는 경우는 약 11%정도로 드러났다. 사업직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32%, 건설업 9%, 유통업 16%, 서비스업 43%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의 경우 평균 49억으로 나타났으며, 81%가 100억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에 대한 태도의 경우 평균 6.9(10점 만점)로 사업에 대해 중간점수인 5점 보다 높아 중립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업운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위험인 지수준은 평균 12점으로 5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점에 해당할 만큼 매우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유지의사의 경우 15점 만점에 약 11점으로 중간점수인 9점 보다 높아 대체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조사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 특성에 따른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수준의 차이

사업에 대한 태도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사업이나 창업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t 검증 또는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사업에 대한 태도는 성별, 전문직 취업여부, 과거사업경험여부, 부모창업경험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전문직 종사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가 창업경험을 가진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부모가 창업한 경험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기업에 임원을 지낸 경우 본인의 사업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사업이나 창업 관련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t검증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전체 조사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 차이 검증

변수	구분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평균	t/F	D	평균	t/F	D
성별	여성	5.57	-3.54***		19.00	.56	
	남성	6.30			18.79		
연령	18-29세	6.12			18.49	4.64**	a
	30-39세	5.93			18.40		a
	40-49세	6.11			19.57		b
	50세 이상	6.37			20.04		b
취업여부	비취업	6.26	1.17		19.91	1.93*	
	취업	6.04			18.78		
교육	고졸 이하	6.04			18.23	.82	
	대졸	6.11			18.79		
	대학원 이상	6.12			19.20		
직업유형	비전문직	6.32	2.02*		18.71	-.86	
	전문직	5.94			19.00		
과거사업 경험	없음	6.02	-2.28*		18.73	-3.65**	
	있음	6.79			20.26		
부모 창업경험	창업경험 없음	6.54		b	19.37	1.58	
	기업임원(직원)	5.91		a	18.35		
	창업경험 있음	6.03		ab	18.79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3.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관련 특성에 따른 창업 및 사업유지 의사결정의 차이

소비자의 창업 및 사업유지의사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창업 및 사업 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당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잠재창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창업의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창업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잠재창업자의 부모가 과거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를 가진 경우보다 창업의사가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에 대한 목표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안이 없어서 창업하겠다는 경우보다 자아실현의 목적을 갖는 경우 창업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잠재창업자의 창업의사의 차이 검증

변수	구분	평균	t/F	D
성별	여성	8.24	-3.66***	
	남성	9.54		
연령	18-29세	8.92	1.10	
	30-39세	9.26		
	40-49세	9.35		
	50세 이상	9.83		
취업 여부	비취업	9.14	-1.96*	
	취업	9.32		
교육	고졸 이하	9.09	.81	
	대졸	9.08		
	대학원 이상	9.59		
직업유형	비전문직	9.30	.36	
	전문직	9.18		
과거사업 경험	없음	9.08	-1.80	
	있음	10.11		
부모 창업경험	창업경험 없음	10.34	6.61*	a
	기업임원(직원)	8.69		a
	창업경험 있음	8.96		b
사업에 대한 태도	부정적	5.95	2.05*	a
	중립	9.31		a
	긍정적	12.28		b
창업 목표	경제적 성공	9.16	2.25*	ab
	자아실현	9.72		b
	대안이 없어서	7.82		a
	생존	9.09		ab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한편, 설문조사당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유지의사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창업 및 사업 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t 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조사당시 사업중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과거실패경험여부, 연간 매출액, 사업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의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없는 경우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를 계속 사업을 유지할 의사가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업자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101억부터 1천억 사이의 사업체를 가진 경우가 100억이하 또는 1천억 이상인 소규모나 대규모 매출을 가진 사업자보다 사업유지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표 6〉 사업운영자의 사업유지의사 차이 검증

변수	구분	평균	t/F	D
성별	여성	10.57	.13*	
	남성	10.50		
연령	18-29세	8.66	1.56	
	30-39세	11.26		
	40-49세	10.34		
	50세 이상	10.60		
교육수준	고졸 이하	9.89	.70	
	대졸	10.19		
	대학원 이상	11.17		
과거사업실패 경험	없음	10.98	3.18***	
	있음	9.62		
부모 창업경험	창업경험 없음	10.10	.70	
	기업임원(직원)	10.80		
	창업경험 있음	10.73		
사업년수	1~9년	10.61	2.95	
	10~20년	10.14		
	21~30년	11.23		
	31년 이상	11.25		
사업직종유형	제조업	10.46	.23	
	건설업	11.13		
	유통업	10.46		
	서비스업	10.44		
년간 매출액	100억 이하	10.43	8.90***	a
	101-1000억	12.54		c
	1000억 이상	10.82		b
사업에 대한 태도	부정적	7.75	2.23*	a
	중립	10.45		b
	긍정적	11.07		b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말해, 100억이하 소규모 사업자나 1천억 이상의 대규모 매출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중간 정도의 매출업자에 비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사업유지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유지의사는 사업년수, 사업직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 영향요인 분석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7> 전체 조사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수준 영향요인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사업에 대한 태도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성별(남성=1)	.86***	0.20	-.61	-.08
고졸	.008	0.001	-.23	-.01
대졸	-.03	-.007	.22	.02
연령	.12	.06	.96***	.30
취업여부(취업=1)	.23	.061	-2.06**	-.31
직업유형(전문직=1)	-.86*	-.229	1.05	.16
과거사업경험(경험=1)	.84*	.123	1.22*	.10
사업에 대한 태도	---	---	-.00	.00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01	.039	---	---
부모창업경험(경험=1)	.39	.085	.45	.05
상수	5.06***		17.68***	
F값	3.88***		3.25***	
R ²	.09		.07	
adjusted R ²	.29		.05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학력의 통제집단은 대학원 석사졸업이상.

먼저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전문직취업여부, 과거사업경험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비전문직에 취업한 경우, 과거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취업여부, 사업경험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들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인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취업하지 않은 경우,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5. 잠재창업자의 창업의사 및 사업자의 사업유지의사 영향요인 분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잠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위험인지가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여부, 사업태도, 부모의 창업경험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취업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부모가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수준이 낮은 경우 창업에 대한 의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잠재창업자의 사업태도와 위험인지가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성별(남성=1)	.27*	.03
고졸	-.36	-.02
대졸	-.33	-.04
연령	.03	.01
취업여부(취업=1)	-1.18*	-.18
직업유형(전문직=1)	-.87	-.13
과거사업경험(경험=1)	-.13	-.01
사업에 대한 태도	1.17***	.69
부모창업경험(경험=1)	.93***	.12
사업위험인지	-2.02*	-.02
상수	2.12*	
F값	43.14***	
R ²	.54	
adjusted R ²	.53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학력의 통제집단은 대학원 석사졸업이상.

한편,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계속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태도, 과거 사업실패경험,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없을수록,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낮을수록 사업의 계속적 유지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사업에

대한 태도 및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는 창업의사와 사업유지의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의사 및 사업유지의사에 태도·행동의 중요성과 위험인지를 중요시 하는 소비자의 사결정이론의 중요성을 입증 할 수 있다.

〈표 9〉 사업자의 사업태도와 위험인지가 사업유지의사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성별(남성=1)	-.31	-.04
고졸	-.67	-.06
대졸	-.51	-.09
연령	.04	.13
사업년수	-.02	-.05
매출액	.00	-.02
사업에 대한 태도	.38**	.24
부모창업경험(경험=1)	-.43	-.06
과거사업실패 경험	-1.26*	-.21
위험인지	-2.04*	-.03
상수	7.73***	
F값	2.16*	
R ²	.15	
adjusted R ²	.08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학력의 통계집단은 대학원 석사졸업이상.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태도·행동모델과 위험인지 변수를 중요시하는 소비자의사결정모델을 응용하여 사업에 대한 태도와 위험인지가 창업 및 사업유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대상자를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잠재창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두 변수 이외에 창업의사 및 사업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다른 관련 변수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에 대한 태도가 어떤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남성, 비전문직

종사자, 부모가 창업경험을 가진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사업태도를 가진 경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잠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 부모가 과거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안이 없어서 창업하겠다는 경우보다 자아실현의 창업동기를 갖는 경우 창업의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없는 경우, 매출액(년)이 중간 정도(101억부터 1천억 사이)의 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수록 사업유지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 한 해수, 사업직종에 따라서는 사업유지의사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전문직취업여부, 과거 사업경험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비전문직에 취업한 경우, 과거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취업여부, 사업경험여부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인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취업하지 않은 경우,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현재 잠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한 회귀 분석결과 취업여부, 사업태도, 부모의 창업경험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취업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부모가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낮은 경우 창업에 대한 의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계속유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업에 대한 태도, 과거 사업실패경험,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수록,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없는 경우,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 수준이 낮을 수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 및 사업 관련 정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을 촉진시키고 창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사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여성, 전문직 종사자, 부모가 창업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 대안 또는 생계형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또한, 사업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사람들, 즉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취업하지 않은 비취업자, 40대 이상 연령이 많은 사람들, 과거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성공의 창업목표를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인지를 낮출 수 있는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의욕이 낮은 사람들, 예를 들면, 여성, 부모가 과거 창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교육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왜 창업의지가 낮은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성과 있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유지의사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인지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세금이나 자금 측면에서의 지원, 법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 사업유지의사가 낮은 과거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들, 매출액(년)이 100억이하로 소규모이거나 1천억이상으로 대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사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실패경험이 있는 사람들, 매출액이 중간규모인 사업자, 사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잠재창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데 점에 서 독창적이라고 하겠다. 가족창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효과가 고용창출 및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족창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이 분야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성공적인 사업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업 관련 실질적인 조사·분석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진, 엄태성, 변광인 (2009), “잠재창업자의 직업 성격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외식·조리 전공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5(1), 67-78.
- 김현철, 홍경완 (2008), “외식창업동기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호텔관광연구』, 10(2), 57-68.
- 남영호 (2002), “가족기업의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 귀금속·보석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 연구」, 24(4), 201-224.
- 박대섭 (2006), 외식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성공 및 권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대섭 외 2인 공저, 「한국서비스경영학회」, 7(1), 201-222.
- 박시사, 강성일 (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박시사 외 2인 공저, 「한국관광학회」, 31(2), 187-204.
- 배종태 (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한국경영학회학술대회집」, 1-7.
- 윤방섭 (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 이신모 (2005), “한·미·일 대학생들의 창업의식비교”, 「국제지역학회」, 9(3), 186-207.
- 이주현 (2008), “창업동기와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30(1), 93-116.
- 이지우 (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한국중소기업학회」, 22(1), 121-146.
- 통계청 (2008), 「2008년 9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 하규수 (2009), “기업가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의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규수, 박배진, 여경은 (2009), “잠재적 창업가의 사업실패 부담감과 환경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2009년 경영학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한정화 (2008), 「벤처창업과 경영전략」, 홍문사.
- Ajzen, I. (1982), *On Behaving in Accordance With One's Attitude*, In M. P. Zanna, E. T. Higgins, and C. P. Herman (eds.), *Consistency in Social Behavior: The Ontario Symposium*, 2, 3-15, Hillsdale, NJ: Erlbaum.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Berglas, S. (1997), *The Risk Averse Entrepreneur*, Inc., February, 25-36.
- Begley T. M., & Boyd, D. P. (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79-93.
- Boyd, D. P., & Gumpert, D. E. (1983), “Coping with Entrepreneurial Stress”,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44-64.
- Brockhaus, R. H., & Horwitz, P. S. (1986),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D. L. Sexton &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25-48. Cambridge, MA: Ballinger.

- Covin, J. G., & Slevin, D. P. (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 Dollinger, M. J. (2002),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3rd(ed), Prentice-Hall.
- Fishbein, M., & Ajzen, I. (1974),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s and the Intention-Behavior Relation", *Human Relations*, 27, 1-15.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 Wesley.
- Greenberger, D. B., & Sexton, D. L. (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 107.
- Hofer, C. W. & Sandberg, W. R. (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41-50.
- Katz, J. A., & Gartner, W. B. (199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29-441.
- Krueger, N. F. (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Krueger, N. F., & Carsrud, A. L. (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3), 315-330.
- Kreu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411-432.
- Krueger, Jr., N. F., & Brazeal, D. V.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Lee, S. M., & Peterson, S. J. (2000), "Cultu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35(4), 401-406.
- Mazzarol, T., & Thiery, V. D. (1999), "Noelle and Their Vicki,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5, 48-64.
- Naffziger, D. W., Hornsby, J. S., & Kuratko (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2.

- Reynolds, P. D. (1992), *Predicting new firm births: Interactions of organizational and human populations*. In Sexton, D. L., & Kasarda, J. D. (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268-297. Boston: PWS-Kent Publishing.
- Sandberg, W. R. (1986), *New venture performanc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Schein, E. H. (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Reading, Mass., Addison-Wesley.
- Sexton, D. L., & Bowman, N. B. (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 and business students*. In R. Ronstadt, J. A. Hornaday, R. Peterson and K. H.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40-51.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Sexton, D. L., & Bowman, N. (1983), "Determining Entrepreneurial Potential of Student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408-412.
- Sexton, D. L., & Bowman, N. (1990), "Female and Mal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ir Role in Gender-Relation Discrimin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29-36.
- Shapero, A., & Sokol, L. (199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A. Kent, D. L. Sexton, & K. 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 NJ, Prentice-Hill, 72-90.
- Smallbone, D. (1990), "Success and Failure in New Business Start-up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8, 34-47.
- Smith, N.R. & Miner, J.B. (1983),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s,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 325-340.
- Ulmer, M. J., & Nielsen, A. (1947), "Business Turn-Over and Causes of Failure", *Survey of Current Business (April)*, 10-16.

하규수

금융감독원 재직중에 유학하여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에서 J.D. 학위를 미국 Georgetown법과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LL.M. 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미국 연방 변호사로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전문관과 HSBC증권 서울지점 Compliance Officer를 거쳐서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학과장과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학부장으로 있으면서 (사)한국벤처창업학회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벤처경영, 경영전략, 중소기업 관련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상혁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생산기술연구원 기술협력부장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책연구단장,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기술마케팅/기술사업화, 지역혁신, 성과분석 등이다.